인간의 생애에 드리워진 '영원, 낭만, 꽃'

전남도립미술관 내일부터 특별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념 연계
대흥사 소장 '관음보살도' 첫 공개
천경자·오승우·김홍주 등 작품도

전남도립미술관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해 개최하는 '영원, 낭만, 꽃' 특별전 개막(20일)을 앞두고 미술관 관계자들이 작품을 점검하고 있다.

장르를 떠나 예술가들에게 친숙한 소재 가운데 하나가 '꽃'이다. 창작 활동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지만 꽃을 통해 위안을 얻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봄부터 겨울까지 다양한 꽃이 핀다. 지역에 따라 피는 꽃은 다르지만 사시사철 꽃의 자태를 볼 수 있다. 이른 봄 한기를 머금고 피어난 매화, 늦봄과 초여름 문턱에 만나는 화려한 장미,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늘거리는 가을 코스모스, 선연한 붉은 빛이 애처로운 겨울 동백 등 꽃은 사시사철 우리 산하를 아름답게 물들인다.

꽃은 인문학적 관점에서도 깊은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다. 한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꽃은 늘 함께 한다.

대흥사 소장 '관음보살도'

꽃을 모티브로 한 특별 기념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이 20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개최하는 '영원, 낭만, 꽃'은 인간의 생애에 드리워진 꽃을 초점화한다.

이번 전시는 꽃을 생성하고 소멸하는 하나의 삶의 표상으로 보고 예술 작품 속에서 낭만성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기념해 열리는 까닭에 '정원'과 '꽃'을 연계해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이연우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는 '모든 것이 흘러간다면 영원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꽃에 비추어 본 인간의 삶을 동서고금의 작품을 통해 다층적으로 가늠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에는 대흥사의 소장품(전남유형문화재 제179호)인 초의선사의 '관음보살도'와 '준제보살도'가 첫 외부로 반출,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또한 프랑스 모빌리에 나시오날에서 대여한 샤를 르 브룅(루이 14세 시대 궁정화가)의 4m짜리 거대한 태피스트리도 볼 수 있어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전시는 모두 5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섹션 주제는 '연화화생(蓮花化生), 재생의 염원'. 진흙 속에서 고결히 피어난 연꽃을 매개로 한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대흥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초의선사의 '관음보살도'와 '준제보살도'가 그것. 전자는 연꽃 받침대 위에 천수관음이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불꽃모양의 광배가 눈에 띈다. 후자는 물속에서 솟아오른 연꽃 위에 앉은 모습을 구현했다. 불교와 연꽃에 담긴 인간의 염원과 영원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백자청화연화당초문수명병', '청자음각연화문고형주자' 등은 고혹적인 미와 실용미를 선사한다.

'자유와 역동, 구체적인 삶의 복귀'로 명명된 두 번째 섹션에서는 꽃을 도상으로 한 민속품과 공예품, 태피스트리 등의 작품을 만난다. 국립민속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외에도 프랑스 왕정과 공화국의 가구, 장식품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모빌리에 나시오날의 소장품이 주 대상이다.

실용품에서부터 현대 회화에 이르기까지 꽃이 어떻게 수용되고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섹션도 있다. 세 번째 섹션 '시대를 넘어서'에서는 프랑스 루이 14세 초기 고블리 공방에서 제작된 물품을 감상한다.

또한 모네 원작의 태피스트리와 한국 근현대 시기 작가의 작품들 즉 천경자, 오승우, 김홍주 등의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네 번째 섹션은 주제인 '미래로부터'가 말해주듯 미국 미디어 아티스트 제니퍼스타인캠프의 '미래로부터'가 시선을 붙든다. 자연을 기반으로 한 화려하면서도 생생한 이미지는 공감각적 경험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 섹션 '삶의 확장, 가능성을 향해'는 현대사회 꽃의 다양한 상징성에 무게를 뒀다. 흑백사진으로 유명한 미국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플소프 명작 외에도 김상돈, 박기원, 정희승 등 우리나라 동시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사진을 비롯해, 회화, 설치 작품에 드리워진 꽃을 발견한다.

한편 이지호 관장은 "꽃이 지닌 인문적, 철학적, 예술적 의미와 깊이를 다채롭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시 초점을 맞췄다"며 "영원에 대한 염원에서 시작해 구체적인 생활품, 민속품을 소재로 구현한 꽃은 물론 예술가들의 심미안이 투영된 꽃에 대한 이채로운 해석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중앙아시아 유물 공개 구입

7월11일까지…상설전시·연구 등 활용

"중앙아시아 유물 관련 소장품 공개 구매합니다."

지난 201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 내 등록된 전문박물관인 아시아문화박물관이 중앙아시아 관련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오는 7월 11일까지.

올해는 중앙아시아 권역의 전통문화와 설화, 도시문화, 민주·인권·평화 관련 자료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종교, 명절, 음악, 도시광장, 전통시장 등이 해당된다. 구입한 자료와 유물은 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에 보존돼 상설전시를 비롯한 교육·연구·문화사업 등에 활용된다.

매도 희망자는 매도신청서와 유물사진 등 관련 서류를 ACC 연구조사과 자료관리팀 기증담당자 이메일(yeopo8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아시아문화박물관은 현재 17~20세기 인도네시아 생활용품과 예술품으로 구성된 누산타라 수집품,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민족의 전통 카펫인 알라키이즈 등 아시아문화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공개 구입은 아시아문화 유물의 연구와 전시를 위한 실물자료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시아문화와 관련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자료를 지속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양승화 판소리 공연

7월 8일 순천 저전 나눔터

양승화

판소리 5바탕의 주요 대목에 대한 해설을 곁들인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양승화 판소리 공연이 오는 7월 8일 순천 저전 나눔터(저전동성당 옆 문화공간)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악 뷔페' 형태의 다양한 무대로 구성되며 지난해에 이어 전라남도문화재단 지원으로 진행된다.

판소리 공연을 펼치는 양승화는 오랫동안 순천의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해왔다. 남도민요 경창대회 대상, 농화 전국 국악대회 명창부 우수상, 진주 개천대회 성악부 금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심청가 눈대목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바 있다.

장단을 맞추는 고수는 지순구. 지난 1999년 고법 신인부 대상(국회의원상), 2001년 고법 일반부 우수상(한예총)을 받았으며 2019년 CTS합창단 창단연주회 협연(장구장단), 2022년~2023년 전남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날 출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사회 및 해설은 순천시사편찬위원회 박희연 연구원이 참여한다. 이날 박 연구원은 판소리 장르 및 5바탕의 주요 대목에 대한 설명을 쉽고 편안한 해설로 전할 예정이다.

특히 언급한대로 이번 공연은 '국악 뷔페' 형식의 무대들로 채워진다. 판소리 장르 공연 시작 전 후, 국악을 관객들이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라인업의 무대들로 준비했다.

여는 공연으로 오연이 전문 시낭송가가 판소리 춘향가와 연계된 시 '추천사'를 낭송할 계획이며, 황희정 전문 바이올리니스트의 국악 바이올린 편곡 무대도 마련됐다. 닫는 공연으로 맥이 끊겼던 고제 판소리(옛 방식의 판소리)를 부활한 손원기 명창의 무대와 지역 원로예술인 이금순 명창의 민요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독립영화제, '한여름밤의 로맨스'를 꿈꾸다

22~25일 광주극장·독립영화관
개막작 '또 바람이 분다' 등 34편

초여름이 시작되나 싶더니 어느새 본격적인 더위가 밀려온다. 그러나 이런 무더위도 한 여름밤의 달달한 로맨스를 꿈 꾸거나 지난 시절의 로맨스를 떠올린다면 그다지 덥지 않을 것 같다.

달콤 쌉싸름한 로맨스의 추억이나 예술을 영화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는 22일 개막하는 광주독립영화제에서는 '한 여름밤의 로맨스' 섹션을 모티브로 관련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제12회 광주독립영화제 '썸인디: 500cc 영화 한 잔'이 25일까지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국내외 우수 장단편 영화 34편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한 여름밤의 로맨스 단편 초청 2'에서는 한 여름밤 로맨스를 꿈꾸는 솔로 관객을 비롯해 현재 사랑에 빠진 연인, 실연의 아픔을 지닌 관객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할 달콤 쌉싸름한 작품들이 초청됐다.

이 코너에서는 광주 뷰폴리에서 광주 시내의 야경을 바라보며 여름의 정취를 즐기며 로맨스 영화를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 마크 발레 감독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퀘벡 내셔널데이를 맞아 퀘벡을 대표하는 감독인 장 마크 발레는 2015년 제이크 질레의 주연 작품 '데몰리션', 2013년 매튜 매커너히 주연의 작품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감상할 수 있는 영화 'C.R.A.Z.Y'(2015)는 개봉 당시 퀘벡 시민 대부분이 봤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퀘벡 내셔널데이를 맞아 퀘벡과 광주의 영화 교류를 위해 특별히 초청된 작품이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상영된 영화도 있다. 김조광수 감독의 '신입사원:더 무비'는 왓챠 7부작 드라마를 영화화했으며, 상영 후 있을 관객과의 대화(GV)에 주연 배우인 권혁과 문지용 배우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 여름밤의 오싹함을 더해 줄 섹션은 '펑키 호러 나이트 단편 초청 4'. '기형종', '알 수 없는', '이방인', '빨간마스크 KF94' 등 4편의 오싹한 단편 영화들도 관심을 끈다.

개막작은 5·18민주화운동 다큐멘터리 '오월愛'(2010)로 알려진 김태일·주로미 감독의 영화 '또 바람이 분다'가 상영된다. 가족 전원이 참여한 제작사 상구네 시리즈이자 10년의 시간과 공간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영화로 '민중의 세계사'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이다.

'또 바람이 분다'

폐막작은 심혜정 감독의 신작 '너를 줍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CGV상, 한국경쟁 왓챠가 주목한 장편을 수상했으며 걸그룹 레인보우의 김재경이 주인공 지수 역을 맡아 열연했다. 부대행사로 광주 영화인들이 영화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네트워크 행사 '광주 영화인의 밤'의 자리도 마련된다. 관람료 무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